

기아 오피러스 대형차 판매 1위

기아자동차의 오피러스가 뉴오피러스의 인기에 힘입어 대형차 시장에서 누적판매 1위를 기록했다.

기아자동차는 올들어 8월까지 오피러스의 누적판매량이 총 8천981대(점유율 35.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5%나 늘어나면서 출시 이후 처음으로 누적판매 대수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동급 차량중 현대차의 에쿠스는 누적판매량이 8천830대, 현대차는 7천279대였다.

이같은 오피러스의 판매실적은 지난 6월 출시된 뉴오피러스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뉴오피러스는 출시후 3개월 연속으로 대형차중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5월까지 오피러스의 누적 판매량은 2천728대에 그쳐 에쿠스와 현대차에 크게 밀렸으나 뉴오피러스가 출시후 3개월간 6천253대나 판매되면서 전체 판매량에서 오피러스가 1위로 올라섰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부모모시면 대출금리 깎아준다

최근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공익적 성격을 가미한 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모를 모시는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등장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노부모를 부양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입자에게 금리를 0.3%포인트 할인해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고객의 경우 최저 연 5.48%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장기모기지론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시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도 금리 혜택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퇴직연금도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복합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애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클릭 이종목

기업공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업체 수는 1천657개(유가증권시장 717개, 코스닥시장 940개)가 된다. 정보력 등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뒤지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 많은 종목중에서 알짜기업을 선별해 직접투자

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 지점장들로부터 종목 추천을 받아 매주 월요일 유가증권과 코스닥 종목 1개씩을 소개한다.

달러 약세로 여행늘어 우호적

LCD 호전 ...저가 매수 기회

롯데관광개발

여행업계 3위 업체로 지난 6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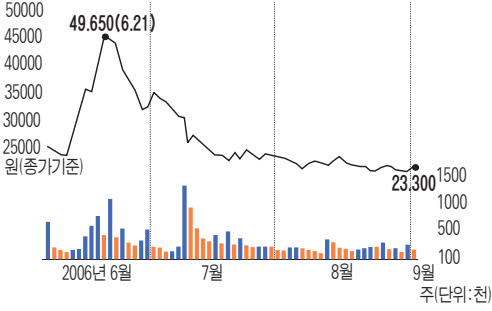
공모가 1만8천원인 이 주식은 2만5천원에 첫 거래를 시작해 6월 22일 장중 5만4천900원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세로 돌아서 1일 현재 2만3천3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정종환 광주지점장은 "상장 1개월 후부터 보호예수에 들어선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지만 1개월가량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점장의 지적대로 기관이 보유한 180만여 주 가운데 100만주 이상이 매물소화 과정을 거쳐 최근 타 여행관련주들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하락강직성이 강화되고 있다.

정 지점장은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는 지난지만 최근 유가하락과 원화까지 상승 등 여행수

롯데관광개발



요를 이끄는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출에서 해외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6.5%로 타 업체에 비해 높아 마진율이 높은 점과 최대주주 지분이 51.5%로 높아 유통물량이 적은 점도 추천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영업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마케팅 부담과 9월에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전체의 18.5%)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에스엔유

LCD 측정장비 업체로 2분기 실적부진으로 지난 5월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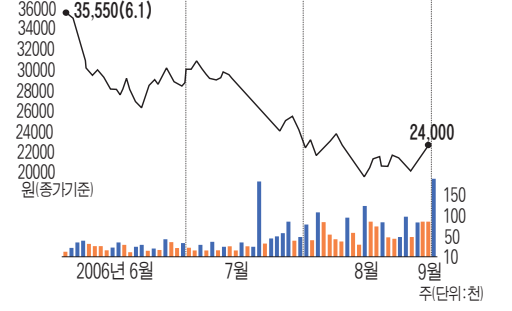
하지만 반도체/LCD 업종이 2분기를 바닥권으로 하반기부터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부터 바닥을 다지고 있다.

LG필립스LCD의 설비투자 연기가 LCD 장비업체 전반의 실적악화를 초래했지만 에스엔유의 경우 LG필립스LCD외에 삼성전자, AUO, CMO, DNP 등 국내외의 주요 LCD업체에 납품하는 등 수주처 다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LCD 장비업체 전반이 가격하락 압박으로 이익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기존 순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종환 지점장은 "최근 LCD 관련 주들이 많이

에스엔유



올랐지만 에스엔유는 타 종목에 비해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며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IT펀드를 조성중인 기관들이 중장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들어 에스엔유를 편입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매달 1일 '쌀빵' 드세요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찬인)와 (사)고향생각주부모임광주시지회(회장 선덕희)는 우리쌀 소비확산을 위해 매달 1일을 '쌀빵데이'로 지정, 지난 1일 광주농협 맥국 하나로클럽 앞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전남 축산농가 가축공제 '외면'

가입률 2.4%... 전국 최하위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를 당한 가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협의 가축공제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남지역 공제가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소·돼지·닭 등 가축이 자연재해나 질병·화재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공제 가입률이 전남은 2.4%로 충북 1.1%과 더불어 전국 꼴찌권이다. 반면 경남 9.5%, 제주 9.3%, 전북 9.1%, 충남 8.0%, 경북 6.9% 등으로 전남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공제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최근 수년간 폭우나 태풍이 전남지역을 비껴가면서 농가들이 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코스피 1.93%! 코스닥 18.4%!

한국증시 수익률 세계 최하위권

올들어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증시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31일 현재 작년말보다 18.38% 하락해 세계 거래소연평균(WFE)에 소속된 42개국 44개 증시 가운데 최하위로 처졌다. 코스닥지수는 작년에는 연간 84.52%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코스피지수 역시 1.93%가 낮아져 작년 4위에서 올해 40위로 밀려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시가 경기전망과 기업실적 등 경제 지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안전판 기능을 담당할 투자주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다"고 말했다.

러시아 RTS지수는 올들어 44.52%가 올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 상하이지수가 42.86%의 상승률로 뒤를 잇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중소기업 외상·어음거래 급증

현금결제 줄어 자금난 심각

고유가·환율하락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중소기업연합회(회장 장춘상)가 올 1~7월 지역내 중소기업 197개를 대상으로 '금융환경 관련 자금조달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대금 결제 방식 가운데 현금결제는 38.1%로 지난해 동기 39.6%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상은 28.9%로 0.6%p, 어음은 33.0%로 0.9%p 각각 증가했다.

어음결제에 대한 평균결제기일도 지

난해 80.4일보다 5.8일 늘어난 86.2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의 37.6%가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50.5%, '원활하다'는 업체는 12.5%에 불과했다.

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업체는 23.9%였으며 은행 대출금 상환시 1회 이상 연체한 경력이 있는 업체는 10.2%, 3회 이상 연체한 업체는 1.3%였다. 은행 대출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대출한도가 축소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24.7%, 신규자금의 대출기간이 단축됐다는 응답은 10.2%로 집계돼 은행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19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35 36 37 41 44 45	3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727,876,520	1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7,395,975	27
3 5개 숫자 일치	1,198,743	1,518
4 4개 숫자 일치	62,663	58,079
5 3개 숫자 일치	5,000	937,967

팝콘복권

(제19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6조 127973
2	5억	6조 127972
		6조 127974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11980
5	1만	각조 781
6	2천	각조 29
		각조 04
7	1천	각조 4
		각조 3

Well-being

가매스시

8.25 Open

세심함 속에는 신의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DOOR TO DOOR